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6월 12일 (제115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낡아질지언정...

나는 후대가 이렇게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분은 다 써서 낡아져 가셨다.”라고. 나는 써서 낡아질지언정 녹슬어 버려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매사 최선을 다한다. 쉬지 못하고, 멈추질 못한다. 나는 ‘잊지 말자, 6·2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다시 뛰려고 시동을 거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이 나라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 코앞에 있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며 수수방관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나의 의증을 누가 알까? 다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이도 있는데 일 좀 그만 벌이라’ 걱정한다. 그러나 나는 써서 닳는 편을 택하련다. 녹슬어서 버려지고 싶지 않다. 왜 녹이 슬까? 쓰다가 안 써서 그렇다. 자동차도 쓰다가 안 쓰면 녹슨다. 머리도, 몸도 쓰다가 안 쓰면 녹슬어 안 돌아간다. 그것보다는 써서 닳아지는 편이 낫다. 그러면 후대는 나의 업적을 기릴 것이고, 나를 ‘참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존경하게 될 것이 아니겠나. 하물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라고 하시지 않을까. 닳아 버려지는 것이나 녹슬어 버려지는 것이나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닳아 버려지는 것에는 ‘참 좋은 연장이었는데...’ 하는 주인의 애뜻함이 남는다. 그러나 녹슬어 버려지는 것에는 ‘어차피 필요도 없는 데...’ 후련함만 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쓰다 닳아 낡아지길 바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인의 후한 평가를 기대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4:7-8). ‘쓰다 닳아 낡아질 것인가, 녹슬어 버려질 것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코로나가 찾아들자 새로운 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스테그플레이션, 곧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이중고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놓은 성과들이 일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때이다. 목사님은 이러한 위기의식 가운데 국가

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튼튼하고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강대국의 식민지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고통의 역사,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며,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가 없는 경제? 안보가 없는 민주주의? 다 공염불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무슨 경제성장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저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어떠한 약속도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기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

를 위한 기도의 봉합불을 다시 높이 드셨다. “잊지 말자, 6·2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슬로건으로 다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제주에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열며,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는다’는 찬송 가사처럼,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촉구하셨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전 세계를 다녀보니 나라가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10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서울 시청광장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부천, 대구, 잠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나는 이 나라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받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내 나라가 튼튼해야 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부국강병의 나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일개 정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진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나라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나는 6·25를 경험했고, 월남전도 겪어보았습니다. 내 군대 동기 중에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한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만큼 살았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전쟁은 일체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넘어 남북 및 북미대화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계속하고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도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꿈같은 평화통일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를 믿기에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뜻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힘쓰기로 기도합시다!” **한은택 목사**

잊지 말자, 6. 2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깨어서 기도하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3)

깨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시편 78편에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잊고 반역하다가 징계를 받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비로 인도하셨는지를 강조하며,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6·25전쟁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비통함과 처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방에 힘을 쏟았고, 근간이 되는 경제력을 키우는데 진력했습니다. 그 결과 6·25전쟁 72년 만에 당당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전쟁의 쓰라린 패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쏘나무, 곧 뿔감용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쓰디쓴 쓸개를 씹었다는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의 심정으로 지내온 세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후세대가 압도적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상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6·25는 북침이었다.'라며 북한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6·25는 분명한 남침이며, 그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종전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입니다. 역사의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잠자고 있는 역사의식을 깨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잊지 말자, 6·2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뛰려 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과거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불평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도 휘방꾼이 되어서도 안 되며,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니까요.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저 강원도까지 돌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집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大事), 곧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에 전쟁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

었습니다.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통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시 서독의 경제는 세계 3위였고, 동독은 13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이 되니 동독 경제의 회복과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났던 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한때 독일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을 흡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준비 없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혼란이 가속될 것이며, 우리 경제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준비도 넉넉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 큰 자가 되어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동시켜 우선 대화의 장소로 끌어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감동시켜 무릎 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송우화에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서처럼 세찬 바람으로는 절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따스한 바람만이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게 합니다. 우리가 훈훈한 바람을 불어낼 때 그들이 움켜쥔 옷을 벗어 던질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평화통일만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고, 열방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도착점에 누가 빨리 가나 내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경기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도중에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토끼가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경기를 하되 진 자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자고 제안합니다. 토끼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해서 재경기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토끼의 승리였습니다. 약속대로 진 거북이가 제안을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삼세판 하자고, 그것도 강에서 경기를 하자고. 토끼가 보니 승산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에서는 거북이가 업고 가고, 육지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자고, 그러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아닌 협력의 구도로 갈 때 상생의 길이 열립니다.

통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시 서독의 경제는 세계 3위였고, 동독은 13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이 되니 동독 경제의 회복과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났던 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한때 독일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을 흡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준비 없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혼란이 가속될 것이며, 우리 경제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준비도 넉넉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 큰 자가 되어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동시켜 우선 대화의 장소로 끌어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감동시켜 무릎 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송우화에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통일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89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일,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는 날을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쓰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이 끓기 전이 가장 시끄러운 법,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끓기만 하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넘쳐 나가버리고 깨끗한 물이 되듯, 우리의 기도가 어둠을 몰아내고 통일의 새 아침,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이루는 믿음의 벅찬 역사를 써봅시다. 늘 깨어 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기억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추억담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추억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신당부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후세에게 전수했더라면 나라를 잃는 비참한 지경까지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애끓는 당부가 기록되어 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 곧 광야의 신세대에게 모세는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며 젖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계속된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하던 그들은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세대를 지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2:10).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가나안 차세대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일삼다가 역사를 망치고 만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 나라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던가. 한 나라가 융성하고 퇴락하며 재기하는 역사를 보면 그만큼 역사의식이 중요함을 느낀다. 우리가 오늘의 부흥과 융성을 이루게 된 것은 반만년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픈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다시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봉화불을 드시는 이유도 지난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양산하며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6·25전쟁이 벌써 72년이 흘렀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며, 또한 여전히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의 위협 앞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다시 기도의 봉화불을 높이 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때이다. 모두가 뜻을 모아 기도로 동참하자.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여보게! 만물은 들을 귀가 있네. 성경을 볼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고 명하니 태양이 머물렀고, 예수님이 “파도가 잠잠하라.”고 명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네. 식물이나 물에게도 ‘사랑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만, ‘미워’라고 말하면 상하거나 시들시들하다 죽지 않던가. 내가 하고픈 말은 만물이 이렇게 들을진대, 귀가 있는, 그것도 귀가 두 개씩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귀머거리라는 거지. 이사야 42장에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이 들으라 너희 소경들이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네가 많은 것을 볼찌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찌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사 42:18~20)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라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을까. 나 같은 주의 종이 할 일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어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네(사43:8).

여보게! 영적 귀머거리란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네.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행 28:26)라며 완악해져 귀를 닫은 시대를 한탄했네.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네. 그래야 잘 들리고, 제대로 들리거든. 할례를 안 받으면 이상하게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들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렘 6:10~11). 귀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네(계3:20).

자네, 귀가 있지? 그렇다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나.

朋友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닫은 문은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계3:7).

본시 문이란 닫은 자가 열게 되어 있다.
남북 간에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
함께 기도할 것이다.

한나는 기도로 닫힌 태의 문을 열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열었다.
모세는 기도로 막힌 홍해에 길을 열었다.
우리로 기도로 막힌 휴전선을 열어보자.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사
꿈을 꾸듯이 통일되는 것을
머잖아 우리 눈으로 목도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이다.

모두 기도에 동참하여 역사의 중심에 기록된 자가 되자!

2022. 6. 朋友 이초석 목사

:: 생명의 말씀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 큰 감동을 받았다. 하루는 집사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25인승 버스가 교회에 없기에 여쭙보니, 수리할 일이 있어 잠시 가지고 나가셨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평소에 하고 싶었던 창문 유리 썬팅과 수리할 부분들을 교회에 부담주지 않고 당신의 돈으로 하고 싶으셨단다. 평소 열심히 봉사하시며 교회 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늘 고마운 마음이 많았다. 요즘 부쩍 신앙의 변화가 돋보여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생각지 못한 큰 감동까지 주셨다. 이 일이 있기 두 달 전, 나는 설교 도중에 교회 성물들을 아끼며 봉사하는 분들을 호명하며 참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칭찬하며 축복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그 이후부터 집사님께서 눈에 띄게 흥에 겨워 봉사를 하시고 평소 뜸하셨던 기도회에 빠짐없이 동참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신다.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성물에 다시 물질을 되돌려 드린 것이다.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지 않은 큰돈을 애써 스스로

감당하신 모습에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지 할 말을 잃었다. 언젠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설교란 소수를 통해 다수를 살리고 전염시키는 것이며, 그래야 교회가 점점 생기를 얻는다고 하셨다. 강단에서는 근본적으로 칭찬을 살리는 설교를 지향하라는 말씀이셨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남은 알곡까지 상하지 않으려면, 꿀통을 발로 차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이것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성공의 공통점일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목회 성공 노하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분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늘 소수의 충성스런 성도들을 타깃 삼아 설교했노라 하신다. 잘하는 이들을 더욱 복돋아 주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간주하며 믿은 결과를 열매로 거두었다 하신다. 실제로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칭의, 稱義)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멋지게 변화될 내 이웃의 모습을 상상하고 간주하며 나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라! 송치화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구원의 근심, 회개

어떤 목사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왜 민감해야 하는지 설교하셨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초신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죄를 지었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왜 죄인인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죽은 송장은 배 위에 100kg 짜리 돌을 얹어 놓아도 느끼지 못하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죄를 양분 삼아 일합니다.

:: 짧은 이야기 ::

기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타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우리교회 목사님을 따라 목회자와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곳에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증거 삼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태초부터 이어진 사단의 전략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하셨지만, 본인이 죄를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속죄받을 수 없기에 ‘죄를 깨닫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성경 속, 고린도교회를 살펴봅시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해서 경제, 사회, 정치적 발달이 고도화되어 모든 근심이 ‘무엇을 더 얻지 못할까?’를 염려하는 ‘세상적인 것’이었지요. 때문에 부도덕함, 음란, 당을 짓는 죄악이 교회 깊이 침투하여도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

어나고 심령들이 뜨거운 우리 교회가 궁극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통성으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방향이 같아 이시대 목사님 차를 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시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중심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7:10). 우리가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귀한 근심이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무의미하단 뜻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돌아보아, 사단이 양분 삼을 죄의 씨앗들을 골라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회개한다면, 더 이상 사단이 양분 삼을 것이 없기에 문제의 고리들은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비로소 이루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신 대로입니다. 기도가 그 답입니다.” 다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시대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안 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도,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크리스천이 지나간 자리

전자제품 설치를 마치고, 설치 기사님에게 과일과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대접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아, 대뜸 총회장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죠!”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아세요?” 그의 눈은 벽에 걸려 있는 교회 달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타 교단의 성도라는 소개와 더불어, 과거 총회장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받았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말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회의 교파와 달력을 보고 예수중심교회 성도의 집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작은 친절로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기억을 하나 더 남겼으니 말입니다. 한겨울의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관리인이 한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힘겹게 치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설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입주한 세대가 꽤 있어서 임시로 분리수거 장소를 정해 놓았는데,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 수거업체에서 계속 거부했나 봅니다. 입주민들이 잘못된 일인데, 추운 날씨에 관리인 혼자 반나절은 고생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

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와 마주치면 인사하거나 가끔 과일과 간식을 드렸을 뿐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다른 관리인이 듣고, ‘00동 00호 주민은 기독교인’이라며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를 도왔던 일이 그들 사이에서 또 대화의 주제가 되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졌을 테니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정말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중략)…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다 그러했노란 말을 듣고 감사의 기도로 인생을 마감길 원한다.” 교회 신문(2022. 1. 30)에 실린 총회장 목사님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삶이 그러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목사님의 삶이 진실로 그러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답하겠습니다.”라고 존경을 가득 담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쉽게 크리스천을 알아보고,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지 주목합니다. 크리스천이 일탈을 저지르면,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이름뿐인 크리스천인지 상관없이 언론에서 더 강력하게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도 더 심하게 손가락질하며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말하곤 합

니다. 목사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윤리 ·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5:14).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 삶이기에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람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흐려지더라도 그의 착한 행실을 추억하며 예수님을 떠올릴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남아 예수님이 보시고 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정명관**

범씨 한 톨

어느 부자 영감에게는 세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든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집안 공간을 넘겨야 할지 고뇌가 깊었다. 그래서 영감은 세 며느리를 시험해보기로 한다. 영감은 귀한 비단 주머니 3개를 준비해 각각 며느리들에게 주었다.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공간의 열쇠를 주신 줄 알고 기대하고 비단 주머니를 열었는데 범씨 한 톨이 들어있자 “뭐야?” 하며 범씨를 먹어버렸다. 영감은 둘째 며느리도 불러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둘째 며느리는 역시 “왜?” 하고 범씨를 마당에 던져버렸다. 영감은 역시 어린 셋째 며느리를 불러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막내며느리는 조심스레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고 ‘아버님이 나에게 왜 이 범씨 한 톨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더니 뒷마당에 가서 범씨 한 톨로 참새를 잡았다. 때마침 참새를 잡는 것을 본 옆집 아주머니가 막내며느리에게 참새와 달걀 5개를 바꾸자고 했다. 며느리는 받은 달걀을 정성스럽게 부화시켰다. 얼마 후,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닭 다섯 마리가 되어 장에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고, 돼지를 잘 키워 낳은 돼지 새끼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도 튼튼한 소로 키워 논 서마지기와 바꾸게 된다. 3년 후, 영감은 세 명의 며느리에게 자신이 준 범씨 한 톨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막내며느리만 영감에게 논 서마지기 문서를 내민다. 당연히 공간 열쇠는 막내며느리에게 넘어갔다. 이 전래동화는 달란트 비유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에도 그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범씨 한 톨이 논 서마지가 된 것처럼 그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갈고 닦는다면 그 가치는 천국의 예비된 면류관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찾고 그 가치를 빛내보자!

송현혜

